

어린이 책꽂이



▲못해도 괜찮아=요즘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해보면 하루 일상이 만만치 않다. 나스 마사모도가 쓴 동화 '못해도 괜찮아'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요스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경쟁과 순위만을 생각하는 현대사회에 작은 위로를 준다. "너무 힘내지 않아도 돼!"

〈가문비 어린이·8천900원〉



▲애니는 용감해=데보라 닐랜드의 그림동화 책. 언제 어디서나 용감한 애니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혼자 머리 감을 때, 벌레가 기어오를 때…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애니의 감정을 잘 표현한 그림 전개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크레용하우스·1만2천500원〉



▲우리는 환상의 삼총사=삼총사는 우정의 대명사이지만 그만큼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기도 한다. 샛은 뭇치면 정말 좋은 숫자지만, 짹이 딱 맞지 않아서 힘들기 때문이다. 전문상담사로 일하는 엘리자베스 브로크먼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일상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애피소드로 구성, 재미있게 풀어냈다. 〈개암나무·8천500원〉



▲작은 기적들=작은 소중애씨는 작고 하찮은 기적을 '풀꽃 기적'이라고 부른다. 풀꽃 일사귀이지만 아름다움과 당당함은 기적이며 작은 꽃 속에 있는 암술과 수술, 그 우주가 기적이 때문이다. '빅브리더' '마지막 이발' '만선이의 꽃밭' 등 풀꽃 같은 작은 기적 이야기 7점을 냈다.

〈영림카디널·9천원〉



▲지구마을 어린이 요리책=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35개 나라 대표 요리와 요리법, 요리에 담긴 각 나라 문화와 전통 이야기를 소개한다. '후루루 끊립' 소리 내며 먹는 게 중국에 예의이고, 인도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등 요리로 입맛을 돌우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한겨레이터·1만1천원〉



▲고래동향수=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재미있는 이야기에 녹여 아이의 끝없는 호기심을 채워주는 '과학이 잘잘잘'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아빠의 허풍 섭신 이야기 속에 고래동이 한수의 원료라는 사실을 사르르 녹여 놓았다. 또 응용형, 향유고래와 대왕오징어에 얹힌 다양한 정보도 담았다.

〈한솔수북·9천500원〉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카네이 캠프=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카네이 인간관계론'의 어린이판이다. 한국 카네이 연구소 최현순 소장과 김현태씨가 어린이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인간관계의 일곱 가지 비밀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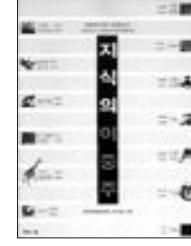
〈슬립어린이·9천500원〉

▲나는 진짜 나일까=천만원 고교 제6회 푸른문학상 '미래의 작가상' 부문 수상작. 최유정의 장편동화로 집에선 아빠의 폭력에 시달리며 학교에선 오히려 폭력의 가해자가 된 주인공이 선생님의 관심으로 자존감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 〈푸른책들·9천500원〉

GMO,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식의 이중주'

교수신문·한국과학창의재단 엮음



GMO(유전자변형식품)는 정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잠재적 위험 인지인가 아니면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혁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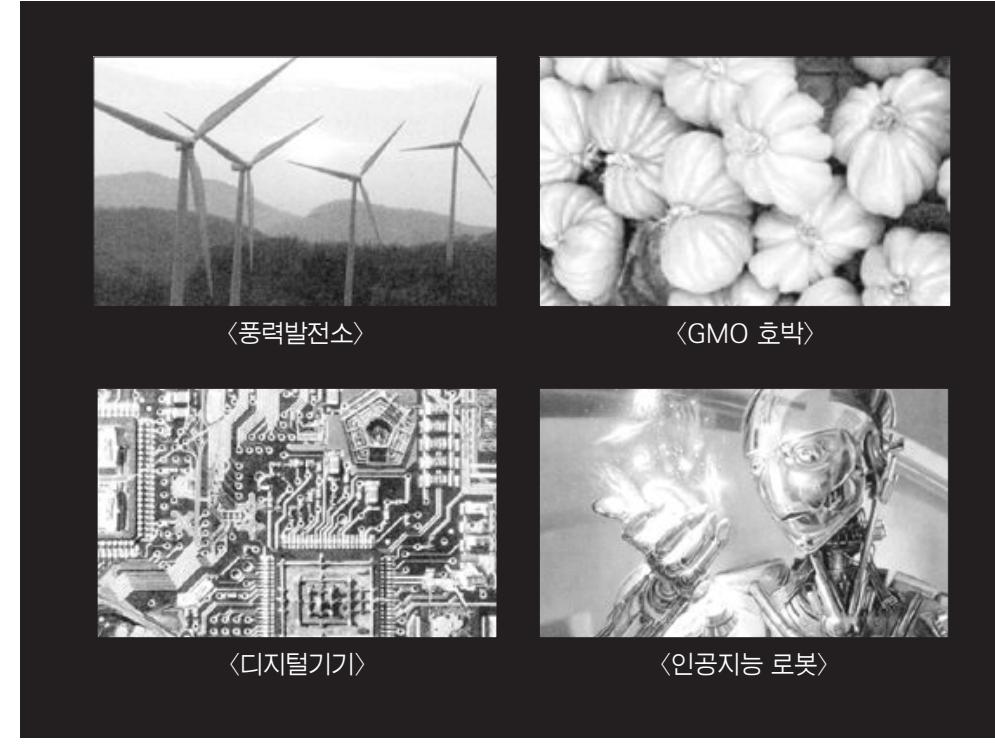
이 물음에 대한 견해가 모두 일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다. 더구나 질문 받은 사람이 한쪽은 생명공학자이고 다른 한쪽은 친환경론자라면 그 시각과 주장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GMO'에 대해 이석하(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는 "GMO의 유해성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하며, 적극적으로 GMO 기술 개발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순권(경북대 응용생물학부) 교수는 "현재의 GMO 농작물은 친환경적이지 않으며 기아 해결책도 아니고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 반박한다.

'지식의 이중주'는 현대사회의 13가지 키워드에 대한 학자들의 치열한 논전논박을 다투고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 치매' 같은 최신 과학 주제뿐 아니라, 인류에게 오래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시간', '우연', '죽음'과 같



은 묵직한 주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시간'을 정량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리학자와 철학자의 다른 시선, '인공 지능'의 한계에 대한 로봇공학자와 과학철학자의 논쟁, '죽음'에 대한 철학자와 생명공학자의 상이한 시선 등도 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철학 vs 전자공학, 생물학 vs 철학, 물

리학 vs 철학, 교육학 vs 심리학 등 전공이 다른 내로라할 만한 학자간의 대화를 주제별로 엮었다.

이 책에서 다투고 있는 키워드와 주제는 과격적이다. 인간의 삶은 진화론의 언어로 해명이 가능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디지털 치매'는 새로운 인간 진화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의 징후인가, 지구온난화 경고가 과장되어

유포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가, 자동차 연료 탱크를 채우는 바이오 연료는 제3세계 식량난을 부추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에너지인가 등 이 시대의 핵 이슈들을 논평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지식의 최전선에 있는 학문의 눈부신 성과들이 어떤식으로 조우하는지, 학자별로 어떠한 관점에서 키워드를 읽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생각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최근 학계의 중요 학두는 '통섭'과 '지식융합'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물론 인문학자와 과학자들간의 확고한 입장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다.

그렇지만 이것은 '학문 간 경계와 벽을 허물자'고 하는 학문적 소통과 지식의 완성으로 이어져 때로는 불협화음을,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조화로운 화음을 선보인다. 즉 논전논박에 이뤄가는 이들이다운 '지식의 이중주'가 아닐까 싶다.

책은 지난해 교수신문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이언스타임즈'에 연재된 공동기획을 '학문 간 대화로 읽는 공동 키워드' 내용을 묶은 것이다. 2009년 상반기 교수신문(www.kyosu.net)과 사이언스타임즈(http://www.sciencetimes.co.kr)는 새로운 이슈 키워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나루·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왕을 꾸짖는 반골 선비들

'조선의 발칙한…'

정구선 지음



절대 군주의 시대였던 조선시대에도 재야의 논객 '미네로비'가 있었다. '조선의 발칙한 지식인을 만나다'는 왕을 우습게 여긴 15명의 이야기를 다룬다.

왕조시대에 왕은 법이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큰 죄였다. 하지만 이들은 오직 자신의 신념과 의지대로 살다 간 은자들이었다. 권력과 벼슬을 탐하지 않으며, 학문과 교육에 힘쓰고 자연을 유람하며 시를 읊은 재야의 선비들이었다.

또 왕과 신하들이 실정을 할 때면 어김없이 상소를 올려 꾸짖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조식(趙植)이 명종에게 올린 상소를 보면 정치, 왕, 권력에 대한 발칙한 쳐사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염볼 수 있다.

그는 당시 경상도 단성 현감에 제수되자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사퇴의 변을 토로했는데, 이 상소는 그의 강직함과 관직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상소의 첫머리에서 관직을 내린 것을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며 은근히 임금을 비판한다.

〈애플북스·1만2천800원〉

/여관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상가 다석의 정신세계

'다석 류영모'

박영호 지음



불경, 성경, 동양철학, 서양철학에 두루 능통했던 다석 류영모(1890~1981)는 대석학자와 철학자로 활약한 100년간의 삶을 풀어낸다.

20여 년 동안 다석 선생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 박영호가 쓴 '다석 류영모'는 스승인 다석 선생의 정신적 깨달음을 뒤쫓는 책이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다석의 육체적 생애를, 2부는 정신적 사상을 다투고 있다. 2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 다석이 어떻게 구도의 길을 걷게 되었고, 구도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다석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설명해준다.

저자는 특히 다석의 열린종교 사상과 한글사랑에 주목하고 있다. 다석은 사상적 개인이 기독교였지만 불경, 노자, 장자, 불스토이, 간디 등 동서양을 넘나드는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종교철학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또 "다석의 유일한 저서라 할 '다석일지'에는 우리말 시조 1천700여 수가 전해지며 동양경전을 쉬운 우리글로 읽겼다"고 말했다.

〈두레·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상을 바꾼 '마법의 섬'

'갈라파고스'

BBC 다큐 제작진 지음



고요한 태평양 한가운데 심해, 낮은 반구형의 거대한 화산이 솟아오른다. 화산은 여기저기 심해의 자작을 흔들고 나와 섬이 된다. 그리고 마치 여러 마리 코끼리가 북이 풀장에서 수영하듯 섬들은 오랜 시간을 떠돌아다녔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해도를 작성한 최초의 스페인 항해자들은 자신들이 섬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영국 BBC의 자연 다큐멘터리 '갈라파고스' 제작진이 쓴 갈라파고스 현장 보고서 '세상을 바꾼 섬 갈라파고스'가 책으로 나왔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근원이자 '마법의 섬(Las Encantadas)'으로 불리는 갈라파고스섬의 기원부터 갈라파고스를 찾은 비글호의 여행, 다윈의 삶, 다윈이 갈라파고스를 찾기 전 섬의 비극적인 역사, 오늘날 섬이 당면한 문제까지 갈라파고스를 다양 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40여 명의 전문 사진작가들이 찍고 선별한 160여 장의 생생한 사진이 함께 실려 있다.

〈궁리·3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5210 원 011-602-2233
(광주동부 신도점점, 대인 소방서점)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살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절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절포가 여러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래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직접거래

010-8004-6669

고흥 녹동 고속터미널옆

(봉암리조선소 확정지역)

상가부지 500평~700평

(당 50만원)

시세절반 가격

고흥 드량도(섬)

800평. 평당 3만원

낚시터, 별장지역으로

최적

고흥 바닷가

전원주택지

(답) 812평

(현황도로접)

평당 1만2천원

금 1천만원

고흥군 조종한 바닷가
외면지 전세 2천

노부부 생활비 제공함

금보부동산컨설팅

☎ (02) 8849 원 011-602-2233

(선수동 543-51(우편타운점)

싼땅매매

· 5평 산단 4평(470평)

200평 22평(평당 110만원)

· 5평 산단 1평(100만원)

· 5평 산단 1평(100만원)

· 5평 산단 1평(100만원)

· 5평 산단 1